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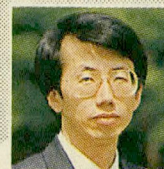
국제화

파푸아뉴기니의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젊은이. 국제화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젊은 사원을 세계각국에 보내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기도 한다.

인터뷰

“西歐지향”이 국제화는 아니다

고려대 박기성교수(사회학)



『신세대는 국제화에 대한 적응력과 실천력이 다른 어떤 세대와 비교되지 않을만큼 강합니다. 다만 그 방향이 문제이지요』
고려대 박기성교수(사회학·사진)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화란 서구지향의 동일문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세대가

위성방송 각종 상품 어학테이프 등을 통해 외국문물을 입력시키지만 할뿐 새롭게 생성해 출력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또다른 종속이 돼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이미 경제뿐 아니라 인적·물적정보의 영역에서도 세계적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했다. 21세기의 주인공인 신세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보다 「내가 다른 지역과 어느정도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시, 세계로 향한 안테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박교수의 주장이다.

다년간 사원을 파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와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신세대는 벌써부터 국제화라고 고집한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열정적인 서구지향으로 비칠 정도다. 그러나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보면, 파견되면 세계로 가는 기차의 맨 앞차리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아, 신세대가 그렇다.

多人種문화 열병
우선 신세대에게는 외국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라 C.F는 유망의 속어』나 『존재한다』 신세대는 아무런 뿌리 없이

제나 아니냐를 논의하는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고 했다. 문화나 기호에서 국경을 따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눈에 보이는 상품만이 아니다. 비디오 위성TV 등 영상매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지구촌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신세대는 이 변화를 즐기는 추세다. 지난날 방송사나 서대지 와 아이들이 휴일처럼 퍼머했다 TV 출연을 금지시켰다. 서대지는 퍼머를 풀고 TV에 등장했지만 합참스, 인디언 담요 모 양의 옷차림을 多人種문화



세계속에 '우리'를 찾아와

여행-어학공부 열성: 국제경험통해 「視野」 넓혀

“해외문물 걸핌기” 우려視角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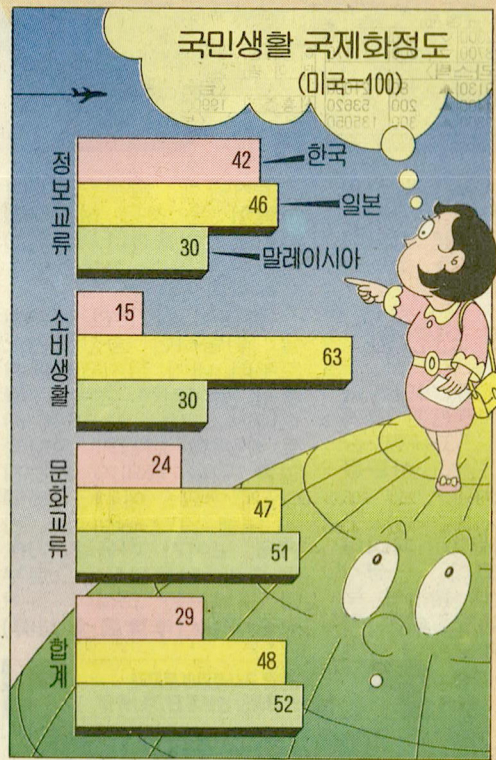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제화 개방화는 아직도 멀었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문물의 걸핌에만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모스크바 유학중 90년 귀국한 韓成虎씨(26)는 한국의 국어대 3년은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만큼 국제화되지 않았습다. 외국 문물을 접할만 하고 있지만 수입할 것이 아니라 보물사냥꾼의 생활과 문화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세계를 더 많이 알지 않으면 이제 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金順德)

『So What? (그래서 어쩔 땐?)』이라는 반격이나 받을 판이다.
해외문물사단 활약
우리보다 나후된 나라에 가서 기술·문화·농수산의 토종사 등을 한 정이 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90년부터 파견하고 있는 청년해외봉사단원들이 그들로 현재 파푸아뉴기니 네발 등 9개 나라에서 1백4명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의 봉사를 받던 나라에서 주느 나라도 발을 뻗고, 현 지문화에 이르는 지역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경험을 통해

신세대속에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신세대에게 反日 反美 감정 의 의미를 잃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휴일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고 있다. 애기다. 전경이론부터의 자유인 셈이다.
사실 국제화시대의 신세대에게 국경이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국적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孫모씨(29)는 『해외 거머는 사람이 로컬컬적 정 안하듯이 내가 외국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단지 나의 발전을 위해 내 일을 열심히 할 뿐』이라고 말한다.
국제관계 변호사인 金柱永씨(28)의 고백은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이 반반이다. 그는 『내외인이나 아니냐가 중요하지 국적인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유망기업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현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듯이 법의 편을 외국과 상관없이 때론 이따금 이런 게 못될 것이다.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도 국제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좁아지고 하나가 되는데 우리편 우리나라만 옳다는 고정관념은 고쳐쳐야 하지 않을까요』
홍모씨는 시대를 만나 자기 개발에도 열성인 신



네팔의 한 고아원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청년해외봉사단원. 지구촌가족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韓國民의 국제화」 日의 60%수준

우리나라 국민생활의 국제화수준은 미국의 30%, 일본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한종합연구소가 각종 지표를 분석해 내놓은 한국의 국제화정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교류나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일본과 비슷한 국제화를 이룬 반면 문화와 소비부문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국제화에 적극적 반응을 보인다』고 연구관계자는 설명했다.